

## 가족돌봄 제공자의 여가지출 및 만족도\*

위예진\*\*·진현정\*\*\*

### 초 록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 및 자녀돌봄, 부모돌봄, 이종돌봄으로 구분되는 가족 돌봄 유형에 따른 여가지출 수준 및 여가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 가족패널조사 9차년도(2023)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30대에서 50대까지의 기혼여성 3,568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CEM 매칭기법으로 주요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후, 돌봄 여부 및 유형 간 여가지출 및 만족도 수준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공변량을 통제한 회귀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기혼여성은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개인 및 가구 여가지출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여가만족도 또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돌봄 수행이 여가 자원과 정서적 만족 양 측면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가족돌봄 유형 간 비교 결과, 여가지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가만족도는 이종돌봄집단이 부모돌봄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종돌봄집단은 다른 돌봄유형에 비해 여가지출과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돌봄의 복합성이 여가활동 참여와 만족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이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개인 및 가구 차원에서 여가지출이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가족 내 돌봄 책임이 여성의 여가 자원에 구조적 제약을 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여가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여가 및 돌봄 정책은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의 자원 배분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주제어 : 가족돌봄, 기혼여성, 여가지출, 여가만족도, Coarsened Exact Matching(CEM)

\* 이 논문은 2021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lovejin1996@naver.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hyunjin@cau.ac.kr)

## I. 서론

주 5일제 근무와 유연근무제의 확대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시키고 있다(Kuykendall, Zhu & Craig, 2020).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혜택이 모든 집단에 고르게 미치지 않는 않으며, 특히 자녀나 부모를 돌보는 기혼여성은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문현아·차승은, 2020; 남궁명희, 2009; Kang et al., 2019; Kim & Jin, 2024). 이들은 가사노동, 자녀양육, 고령 부모 부양 등 다양한 비공식 돌봄(informal caregiving)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 경제적 자원이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차승은, 2015; Kim & Hong, 2020).

이러한 비공식적 가족돌봄에 대한 부담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가족 내 역할 분담 문제가 아니라, 성별화된 사회문화적 규범과 유교적 가족주의에 뿌리를 둔 구조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문현아·차승은, 2020; 남궁명희, 2009; Kang et al., 2019; Kim & Jin, 2024).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 그중에서도 아내에게 가족 내 돌봄 책임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최근에는 결혼 및 출산의 지연,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자녀돌봄과 부모돌봄이 동시에 요구되는 ‘이중돌봄(dual caregiving)’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Ekwall, Sivberg & Hallberg, 2004; Hajek & König, 2019; Künemund, 2006). 이중의 부담은 기혼여성의 여가 참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Ekwall et al., 2004; Hajek & König, 2019; Künemund, 2006).

가족돌봄은 공적 보상 없이 수행되는 돌봄 활동으로,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별 불평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Künemund, 2006; Rubin & White-Means, 2009). 이는 기혼여성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시간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결과적으로 여가 참여 기회의 축소와 여가 자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Kim & Jin, 2024; Meng, 2013). 특히, 가족돌봄 제공자는 생계비 외에도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우선으로 돌봄에 할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위한 지출은 낮은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Kim & Jin, 2024). 이러한 지출 구조는 단지 개인의 여가지출(leisure expenditure)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구 전체의 자원 배분과 소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Godin, 2022). 즉, 여성 개인이 돌봄과 생계지출에 자원을 우선 배분할 뿐 아니라, 가구 차원에서도 여가활동보다는 돌

봄과 관련된 지출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가구의 전체 여가지출 또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여가지출은 개인이 여가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직·간접적 자원의 총합으로, 여가의 양적 참여뿐 아니라 질적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기능한다(권현정, 2018). 비용 제약은 단순히 여가 참여의 양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활동의 다양성, 질적 만족도, 심리적 회복감을 모두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Heitmueller, 2007; Mui, 1995; Spitze & Logan, 1991). 특히 이중돌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정서·경제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여가활동을 위한 지출 여력과 참여 가능성이 동시에 감소할 수 있다(Hammer & Neal, 2008; Borelli et al., 2017).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가족돌봄의 시간적 제약이나 스트레스 요인을 중심으로 여가활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왔으며, 경제적 제약, 특히 여가지출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돌봄의 유무만이 아니라,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여가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더불어, 여가지출이 기혼여성의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한 연구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론적 공백은 여가 참여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성별 및 세대 간 돌봄 부담의 격차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특히 가족돌봄이 단순한 시간적 제약을 넘어 경제적 자원의 배분까지 제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가지출이라는 변수는 가족돌봄과 여가활동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돌봄 vs 비돌봄) 및 가족돌봄 유형(자녀돌봄, 부모돌봄, 이중돌봄)에 따른 여가지출과 여가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여가지출에 대한 분석에서는 Coarsened Exact Matching (CEM) 기법을 적용하여 학력, 소득, 가구형태, 거주지역, 경제활동 여부 등 주요 공변량을 통제한 후, 돌봄 수행 여부 및 유형에 따른 개인 및 가구 여가지출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비교하였다. 특히 가구 단위의 여가지출까지 분석에 포함함으로써, 가족돌봄이 기혼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의 여가소비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가족돌봄 수행 여부 및 유형에 따라 여가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때에도 CEM 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공변량을 통제한 후, 여가지출 수준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는 돌봄 수행 여부나 유형에 따라 여가지출에서 나타난 차이가 여가만족도의 차이로도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여가 자원의 사용뿐 아니라 그 경험의

질적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이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제9차 여성가족패널조사(2023)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9,997명을 대상으로 가족, 일, 일상생활의 세 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가족실태, 가족가치관, 건강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여가생활, 가사노동, 건강과 여가만족도 등 여성의 삶의 질과 관련된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분석 대상은 자녀 양육과 고령 부모 부양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30-50대 기혼여성으로 설정하였다(이현주, 2023; 통계청, 2022). 이 시기는 가족 내 돌봄 책임이 가장 집중되며, 여가활동의 제약 또한 두드러지는 연령대로, 가족돌봄에 따른 여가지출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에 적절한 집단으로 판단된다(이현주, 2023; 최종걸, 2021).

## II. 이론적 배경

### 1. 기혼여성과 가족돌봄

비공식 돌봄은 가족 구성원 또는 타인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신체적·정서적 활동으로, 주로 가족 내에서 무급으로 이루어진다(Künemund, 2006; Ory et al., 1999; Rubin & White-Means, 2009). 이러한 활동은 일반적으로 가족돌봄으로 간주되며, 이는 자녀 양육이나 부모 부양 등 가족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자녀 양육, 고령 부모 부양, 병자 간호 등 일상적인 돌봄은 대표적인 비공식 돌봄으로 분류되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 책임이 기혼여성에게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문현아·차승은, 2020; Kim & Jin, 2024).

여성은 결혼과 출산 이후 가족 내에서 돌봄의 주체자로 인식되며, 이러한 역할은 시간적·정서적·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문현아·차승은, 2020; 남궁명희, 2009; Kang et al., 2019). 기혼여성은 자녀 양육과 고령 부모의 부양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돌봄’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역할 중첩은 여가시간 부족과 경제적 여유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송다영, 2017). 돌봄 부담은 단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유교적 가족주의와 성별화된 역할 기대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성격이 강하다(문현아·차승은, 2020; 남궁명희, 2009; Kang et al., 2019). 한국 사회는 유교적 가족주의 문화와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의 영향으로 인해, 돌봄 책임이 여성, 특히 아내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Kim & Jin, 2024).

세계적으로도 성별 간 돌봄 격차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에서는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문현아·차승은, 2020; 남궁명희,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Kang et al., 2019; Kim & Jin, 2024). 한국의 기혼여성은 가사와 육아는 물론, 노부모에 대한 돌봄까지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정서적 피로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기존 연구에서도 여성의 가족돌봄은 정서적 소진, 사회참여 제약,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동반하며, 이는 삶의 만족도 저하로 연결된다고 제시하고 있다(Borelli et al., 2017; Hammer & Neal, 2008). 특히 이중돌봄은 단일돌봄에 비해 피로감과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으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Daly, 2002; Ungerson, 2005).

## 2. 가족돌봄과 여가활동

가족돌봄은 단순히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을 넘어, 돌봄 제공자의 일상 전반에 구조적인 제약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기혼여성이 수행하는 자녀 또는 부모돌봄은 단순 반복 노동을 넘어, 감정노동과 경제적 책임까지 수반되므로, 여가를 위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Kim & Jin, 2024; Meng, 2013). 특히 이중돌봄의 경우, 정서적·신체적 피로가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여가 참여에 대한 내적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활동의 빈도뿐 아니라 내용과 질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Boyczuk & Fletcher, 2016; von Känel et al., 2014).

선행연구는 가족돌봄이 여가시간을 단축하는 데 주목해 왔으며, 돌봄 강도가 높을수록 여가활동 참여 빈도가 낮아지고, 만족도 또한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Ekwall et al., 2004; Gimenez-Nadal & Sevilla-Sanz, 2011; Hajek & König, 2019). 정서적·신체적 피로가 누적될수록, 여가를 즐기려는 동기 자체가 감소하거나 소극적인 활동에 머무르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Boyczuk & Fletcher, 2016; von Känel et al., 2014).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이 여가 참여의 양뿐 아니라, 여가 경험의 질적인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돌봄과 여가의 연결구조는 단순한 시간 부족이 아닌 다차원적 제약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3. 가족돌봄과 여가지출

여가지출은 개인이 여가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전적 지출을 의미하며, 단순한 소비 차원을 넘어 여가 참여의 빈도와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지표로 작용한다(권현정, 2018). 여가지출은 단순한 소비 항목이 아닌, 여가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 가능성을 좌우하는 지표로 기능하며, 여가활동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DeLeire & Kalil, 2010).

가족돌봄은 여가활동 전반에 다차원적 제약을 가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혼여성은 생계비뿐 아니라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직·간접비용(예: 병원비, 교통비, 교육비, 식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여가를 위한 경제적 자원은 자연히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Meng, 2013).

특히 많은 가정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가계 지출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 기혼여성은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여가소비를 자발적으로 조절하는 경향이 있다(김년희·이응진, 2009; 한국경제인협회, 2024; Godin & Langlois, 2021). 이는 여성의 여가지출 여력 자체를 낮추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국 여가활동의 빈도와 폭은 물론, 질적 수준까지도 제한하게 된다(Borelli et al., 2017; Meng, 2013; Mui, 1995). 권현정(2018)은 경제적 제약이 있는 집단일수록 여가 참여 자체를 줄이거나 소극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여가지출을 줄이기 위한 행태로서 무료 또는 저비용 활동에 한정된 여가 참여가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만족도의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여가지출은 여가활동의 양뿐 아니라 질적 경험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가족돌봄 제공자의 경우 그 민감도는 더욱 높을 수 있다(Heitmueller, 2007; Spitze & Logan, 1991).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혼여성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와 유형에 따른 여가지출의 차이는 단순한 소비 행태의 차이를 넘어, 구조적 여가 불평등의 한 단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가족돌봄에 따른 여가지출의 차이는 여가 참여의 기회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족돌봄이 개인의 여가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제약을 구체적으

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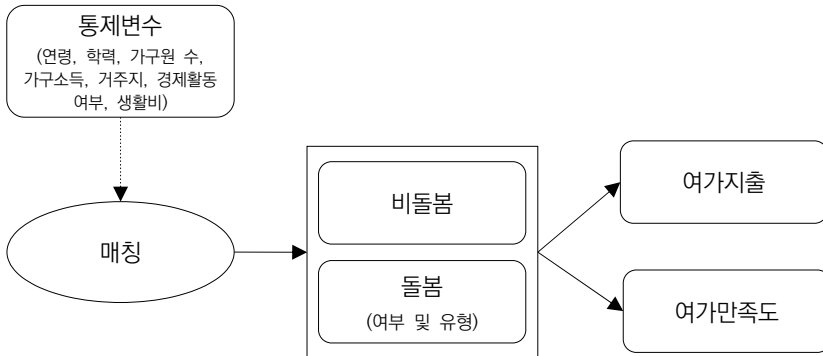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 및 가족돌봄 유형에 따라 여가지출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 더 나아가 여가만족도의 차이로도 이어지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분석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가족돌봄 수행 여부(돌봄 vs 비돌봄) 및 가족돌봄 유형(자녀돌봄, 부모돌봄, 이중돌봄)을 설명변수로 설정한 후 개인 여가지출 및 가구 여가지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때 연령, 학력, 가구원 수, 가구소득, 거주지, 경제활동 여부, 생활비 등 주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교란을 통제하기 위해 CEM 기법을 적용하였다. CEM을 통해 비교 가능한 조건의 집단을 사전에 구성한 후, 각 집단 간 여가지출의 평균 차이를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여성 개인이 지출한 여가비용뿐 아니라, 가구 전체 차원의 여가지출까지 포함하여 가족돌봄이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개인 차원을 넘어 가구 차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검토하였다.

둘째, 가족돌봄 수행 여부 및 유형에 따라 여가만족도의 차이로도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여가만족도를 종속변수로, 가족돌봄 여부와 유형을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동일하게 CEM 기법으로 공변량을 통제한 후 집단 간 여가만족도 차이를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는 여가지출에서 나타난 차이가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닌 여가 경험의 질적 수준과도 연관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돌봄 수행 여부 및 복합성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또한 t-test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공변량을 통제한 회귀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이 회귀분석은 CEM 분석 결과가 주요 인구통계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질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개념적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2. 가설 설정

기혼여성은 자녀 양육과 고령 부모 부양이라는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주로 담당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 정서, 경제적 자원의 배분에 있어 구조적인 제약을 경험한다(문현아·차승은, 2020; 남궁명희, 2009; Kang et al., 2019; Kim & Jin, 2024). 특히 돌봄노동은 물리적 시간뿐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과 심리적 소진을 동반하는 활동으로, 여가 참여 의지와 여건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Kim & Jin, 2024). 많은 가정에서 여성은 생활비와 돌봄 관련 지출의 실질적인 지출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한국경제인협회, 2024), 이는 가계 자원의 우선순위가 가족의 생계와 돌봄에 집중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여가활동을 위한 경제적 자원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리게 되며(Godin & Langlois, 2021), 특히 자원 제약 상황에서 기혼여성은 가족 지출을 우선시하고, 본인의 여가소비는 가장 먼저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송다영, 2014; Borelli et al., 2017; Kim & Jin, 2024).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자녀돌봄과 부모돌봄이 각기 다른 시간적·정서적 부담을 수반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중돌봄의 경우 이 두 가지 부담이 중첩되어 나타난다고 제시되고 있다(송다영, 2014; Daly, 2002; Ungerson, 2005).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 병원비, 교통비 등 다양한 돌봄 관련 비용은 일상 생활비와 함께 필수 지출로 인식될 수 있으며, 복합적 부담은 여가를 위한 시간, 에너지, 경제적 자원의 활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이중돌봄은 단일 돌봄보다 시간적·정서적 부담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 까지도 중첩되는 복합적 상황으로, 이 집단에서 여가활동을 위한 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자 한다.

가설 1. 가족돌봄 수행 여부 및 유형에 따라 기혼여성의 여가지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기혼여성보다 여가지출 수준이 낮을 것이다.

가설 1-2: 이중돌봄을 수행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돌봄 또는 부모돌봄만을 수행하는 기혼여성보다 여가지출 수준이 낮을 것이다.

가구 내에 자녀나 고령 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존재할 경우, 가구의 제한된 시간과 경제적 자원은 필연적으로 돌봄 중심으로 우선 배분되며, 이는 여가를 위한 자원 활용 여지를 축소시키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Godin & Langlois, 2021). 즉, 가족 구성원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존재할 경우, 그 가족의 소비 구조는 여가보다 돌봄에 우선 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가구원의 여가지출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가지출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구성원의 역할 구조에 따라 제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Godin & Langlois, 2021), 가구 단위의 돌봄 부담 여부는 중요한 분석이 될 수 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자녀와 고령 부모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돌봄’ 가구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라는 두 자원이 모두 복합적으로 소모되므로, 여가 관련 지출 여력이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2. 가구 내 돌봄대상의 존재 여부 및 유형에 따라 가구 전체 여가지출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가구 내에 돌봄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돌봄대상이 없는 가구에 비해 가구 전체 여가지출이 낮을 것이다.

가설 2-2: 가구 내에 이중돌봄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자녀돌봄 또는 부모돌봄 대상 가구보다 가구 전체 여가지출이 낮을 것이다.

여가지출은 단순한 소비 수준이 아니라, 개인이 여가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자원의 총합이며, 이는 여가활동의 양뿐 아니라 질적 수

준과 심리적 충족감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권현정, 2018; DeLeire & Kalil, 2010). 실제로 높은 여가지출은 여행, 문화예술 향유, 취미교육 등 자기향적 활동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여가에서의 자기실현과 정서적 회복 경험으로 이어진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Borelli et al., 2017). 이러한 활동은 삶의 만족, 자기효능감, 사회적 관계 확장 등 복합적인 심리적 보상 구조를 수반하며, 여가만족도를 상승시키는 주요 경로가 된다(Newman, Tay & Diener, 2014).

여가지출이 제한적인 경우, 여가 활동은 주로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독서 등 저비용의 수동적 활동에 머무르기 쉬우며, 이는 여가의 본래 기능인 심리적 충전이나 정체성 회복 효과를 충분히 경험하기 어렵게 만든다(민경선, 2020, DeLeire & Kalil, 2010). 이러한 활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능동적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한하며, 정서적 고립감이나 자율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DeLeire & Kalil, 2010). 다시 말해, 경제적 제약은 여가의 질적 경험을 제약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심리적 만족도를 낮추는 구조로 연결된다. 여가지출 수준은 단순한 금전적 소비가 아니라, 여가에서의 심리적 충족감과 자율성을 보여주는 구조적 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혼여성의 여가만족도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가족돌봄 수행 여부 및 유형에 따라 기혼여성의 여가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돌봄을 수행하는 기혼여성은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기혼여성보다 여가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3-2. 이중돌봄을 수행하는 기혼여성은 자녀돌봄 또는 부모돌봄을 수행하는 기혼여성보다 여가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 3.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여성의 삶, 가족구성, 일과 여가, 사회적 가치관 등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단위의 종단조사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컴퓨터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국내 유일의 장기 추적조사 자료이다. 여성의 가사노동, 가족돌봄, 여가활동 및 만족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혼여성의 돌봄과 여가지출을 분석하기에 매우 적합한 데이터이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 9차년도(2023)에 조사된 총 7,437명 중 주요 변수에 결측이 없는 30~50대까지의 기혼여성 3,568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중돌봄이 가장 집중되는 연령대는 40~50대이나, 최근에는 결혼 및 출산 시기의 지연, 부모세대의 고령화, 가족 내 돌봄 분담의 불균형 등의 영향으로 인해 30대 여성들 또한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현주, 2023; 최종걸, 2021; 통계청, 2022). 따라서 분석대상을 30~50대로 설정하고, 자녀돌봄·부모돌봄·이중돌봄으로 가족돌봄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돌봄 특성과 여가지출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 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첫번째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여성 개인과 가구 여가지출이며 두번째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여가만족도이다. 개인 여가지출은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의 1회당 비용에 월평균 참여빈도를 곱하여 산출한 값으로, 단위는 만원이다. 여가 참여의 양적 수준(빈도)과 경제적 지출 수준(1회 지출)을 함께 반영함으로써, 기혼여성의 실질적인 여가소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복합 지표로 활용하였다. 단순히 1회 비용이나 빈도만을 독립적으로 고려할 경우, 1회당 비용이 높지만 빈도가 낮은 경우 또는 1회당 비용은 적지만 반복 횟수가 많아 총비용이 커지는 경우 등 다양한 소비 양태를 포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두 요소의 곱을 통해 산출된 총 여가지출 변수를 활용하였다. 가구 여가지출은 가계 전체의 문화·여가 관련 소비를 반영하기 위해 가구의 월평균 교양오락비(단위: 만원)를 활용하였다. 이는 응답자가 속한 가구의 문화적 여가소비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개인의 여가지출과는 달리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 또는 가구 구성원의 전체적인 여가소비 여력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만족도는 202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 중 “여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 질문은 1점(매우 불만족)에서 7점(매우 만족)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설명변수는 가족돌봄 여부 및 유형이다. 이며, 조사 대상자가 자녀돌봄, 부

모돌봄 또는 이중돌봄 중 하나라도 수행하고 있다면 돌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자녀돌봄집단은 기혼여성 중 가구 내에 미취학 아동 또는 청소년기 자녀(초등학생~고등학생)가 동거하고 있으며, 해당 자녀에 대한 돌봄노동 시간을 응답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가구 구성 항목을 기반으로 ‘동거 가족원’에 자녀(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가 포함된 응답자를 1차 선별한 후, ‘돌봄노동 시간’ 문항에서 0시간 초과 값을 보고한 경우를 자녀돌봄 수행자로 분류하였다. 부모돌봄이나 이중돌봄과의 혼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 또는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며,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및 취학 연령의 자녀는 물론 법적 성인 이전 단계의 청소년기 자녀 역시 돌봄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가족문화 및 자녀 교육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중·고등학생 자녀 또한 학원 관리, 식사 준비, 정서적 돌봄, 진로 지원 등 다양한 차원의 돌봄이 일상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령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자녀는 학원 및 방과 후 활동 관리, 식사 준비, 정서적 지지, 진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다층적인 돌봄이 일상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부모 특히 기혼여성에게 상당한 정서적·시간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 자녀돌봄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현실 반영이라고 판단된다.

부모돌봄집단은 기혼여성 중 자녀에 대한 돌봄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부모 또는 시부모에 대해 실질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먼저, ‘동거 가족원’에 부모 또는 시부모가 포함된 경우를 1차 선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거하지 않더라도 비동거 부모(또는 시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 여부를 추가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이후 ‘돌봄노동 시간’ 문항에서 0시간 초과 값을 보고한 응답자를 부모돌봄 수행자로 분류하였다. 자녀돌봄과의 혼재를 방지하기 위해, 동거 자녀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성인(대학생 이상)인 경우에 한해 포함하였다. 이중돌봄집단은 기혼여성이 자녀와 부모(또는 시부모) 양측 모두에 대해 실질적인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 또는 시부모를 동거 또는 비동거 형태로 돌보며, 두 대상에 대해 돌봄노동 시간을 보고한 응답자를 포함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학력, 가구원 수, 가구소득, 거주지, 경제활동 여부, 생활비 총합을 포함하였다. 각 변수의 측정 및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생활비 총합은 식비, 외식비, 자녀 공·사교육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기타 소비지출 등 주요 항목을 합산한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이다.

〈표 1〉 변수 및 측정도구

구분	항목	
종속 변수	여가지출(개인)	가족돌봄 제공자의 월평균 여가지출 (만원) (1 회비용*월평균참여빈도)
	여가지출(가구)	돌봄 대상이 있는 가구의 월평균 교양오락비 (만원)
	여가만족도	가족돌봄 제공자의 전반적인 여가만족도 (7점 리커트 척도)
설명 변수	가족돌봄 여부	① 비돌봄집단, ② 돌봄집단
	가족돌봄 유형	① 비돌봄집단, ② 자녀돌봄집단, ③ 부모돌봄집단, ④ 이중돌봄집단
통제 변수	연령	만 나이
	학력	① 고등학교 이하, ② 2/3년제 대학, ③ 4년제 대학, ④ 대학원 이상
	가구원 수	현재 총 가구원 수
	가구소득	연간 가구 총 소득(세전 소득) (만원)
	거주지	① 비수도권, ② 비수도권 대도시, ③ 수도권
	경제활동여부	① 비경제활동자, ② 실업자, ③ 경제활동참여자
	생활비	월평균 생활비 총합 (만원)

## 5. 분석 방법

### 1) 매칭 기법

본 연구는 관찰자료(observational data)인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비실험적 자료는 집단 간 사회경제적 특성(예: 연령, 학력, 소득 등)의 차이로 인해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평균 비교나 회귀모형만으로는 인과적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Rubin, 1974; Holland, 1986).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매칭 기법을 적용하였다. 매칭은 관측자료에서 처치(treatment)와 통제(control)집단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전처리 절차로, 처치 이전의 공변량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Iacus, King & Porro, 2009). 이는 실험에서의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과 유사한 조건을 현실의 비실험 자료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사한 배경을 지닌 집단 간의 공정한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Iacus, King & Porro, 2012).

매칭의 이론적 기초는 Rubin(1974)이 제시한 인과추론의 근본적 문제에서 출발한다. 하나의 개인이 동시에 처치를 받은 결과와 받지 않은 결과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과효과 추정은 실제로 관찰가능한 비교집단을 통해 반사실

적(counterfactual) 결과를 대리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Holland, 1986). 하지만 현실의 관측자료는 무작위 배정이 아닌 자발적 선택에 기반하기 때문에, 두 집단 간에는 연령, 소득, 교육수준 등 사전 특성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결과 해석에 편향을 유발할 수 있다(Holland, 1986; Rubin, 1974).

이러한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매칭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 기초한다. 각 처치집단 단위  $i \in T$ 에 대하여, 공변량  $X$ 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집단 단위  $j \in C$ 를 찾아 쌍(pair)을 구성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Abadie & Imbens, 2016).

$$M(i) = \{j \in C: X_j = X_i\} \quad \text{식(1)}$$

현실에서 완전히 동일한 대상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서는 성향 점수(propensity score), 마할라노비스 거리, 또는 구간화 방식 등을 활용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진 관측치를 매칭하게 된다(Abadie & Imbens, 2016). 이렇게 매칭된 짝들 사이의 결과 차이를 바탕으로, 처치집단 내에서 평균을 계산하면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를 추정할 수 있으며, 그 계산은 다음 식 (2)와 같다. 이때  $N_T$  처치 집단의 수이며,  $M(i)$ 는  $i$ 와 매칭된 통제집단 대상자의 집합을 의미한다.

$$\hat{\tau}_{ATT} = \frac{1}{N_T} \sum_{i \in T} (Y_i - \frac{1}{|M(i)|} \sum_{j \in M(i)} Y_j) \quad \text{식(2)}$$

매칭은 공변량의 분포를 유사하게 만들어 단순한 평균 차이만으로도 인과효과 추정이 가능하게 해주며, 회귀모형의 의존도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다(Ho et al., 2007; Iacus, King & Porro, 2012). 이러한 이유로 최근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매칭기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처치효과 추정의 내적 타당성을 높이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간주된다(Ho et al., 2007; Iacus, King & Porro, 2012).

## 2) CEM 매칭

매칭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정확 매칭(Exact Matching),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CEM 등이 있다.<sup>1)</sup> 이 중 CEM

은 공변량의 사전 균형 확보와 모형 의존성 최소화라는 방법론적 장점뿐 아니라, 현존하는 매칭 기법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Ho et al., 2007; Iacus, King & Porro, 2012).

CEM은 전체 관측치를 기준으로 설정된 동일한 공변량 범주 내에서만 매칭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Iacus, King & Porro, 2012).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 분포에 일관된 구간 체계를 적용하며, 모든 공변량에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관측치들만 매칭된다(Iacus, King & Porro, 2012). CEM의 가장 큰 강점은 모형에 대한 최소한의 가정 하에 집단 간 공변량의 사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분석 이후 복잡한 통계모형에 의존하지 않고도, 통제된 조건에서 평균 차이를 기반으로 인과 효과를 비교적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Abadie & Imbens, 2016; Ho et al., 2007). 매칭된 관측치에는 각 계층 내에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며, 이는 추정의 편향을 줄이고 분석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특정 관측치  $i$ 와 비교 대상 관측치  $k$ 가 공변량  $X$ 의 각 변수  $X_k$ 에 대해 동일한 구간화 값  $c(X_{ik}) = c(X_{jk})$ 을 가질 경우에만, 두 관측치는 동일한 계층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매칭이 성립된다. 또한, 각 관측치  $i$ 에 부여되는 가중치  $w_i$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w_i = \begin{cases} 1, & \text{if } i \in T_s \\ \frac{m_T}{m_C} \frac{m_C^s}{m_T^s}, & \text{if } i \in C_s \\ 0, & (\text{if unmatched}) \end{cases} \quad \text{식(3)}$$

여기서  $T_s$ 와  $C_s$ 는 각각 stratum  $s$ 에 속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이며,  $m_T^s$ ,  $m_C^s$ 는 각 집단의 관측치 수를 나타낸다.

매칭 분석 중 CEM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본 연구는 국가통계 기반의 다층적 인구 특성을 가진 관찰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공변량의 분포를 정밀하게 통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CEM은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

1) 정확 매칭은 공변량이 완전히 일치하는 관측치만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연속형 변수나 고차원의 공변량이 많은 경우 적용이 어렵다(Rosenbaum & Rubin, 1983). 이를 보완한 성향점수매칭(PSM)은 처치 확률을 모형으로 추정하여 유사한 점수를 가진 관측치를 매칭하지만, 모형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모형 의존성 문제와 공변량 균형을 사후에 검증해야 하는 불안정성이 존재한다(Heckman, Ichimura & Todd, 1997).

의 구조적 차이를 최대한 제거하고 분석의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Iacus, King & Porro, 2012). 둘째, CEM은 매칭 단계에서부터 균형 조건을 직접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Iacus, King & Porro, 2012), 이후 회귀분석이나 통제변수 설정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없이도 평균 차이만으로 인과 추론이 가능하다. 이는 회귀계수 해석에 따르는 함수형 오차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회피하면서, 간명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Abadie & Imbens, 2016).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가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학력, 가구원 수, 가구소득, 경제활동 여부, 거주지, 생활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공변량으로 포함하였으며, 이들을 사전에 구간화하여 공정한 비교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CEM 절차를 통해, 돌봄집단과 비돌봄집단 간 비교가 실질적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결과적으로 CEM은 단순한 기술적 기법이 아니라, 관찰자료에서 인과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 설계의 핵심적 기반으로 기능하며, 본 연구에서도 해당 방식에 기반한 t-test 분석을 통해 돌봄 여부 및 유형에 따른 여가지출의 효과를 검정하였다. 이처럼 CEM을 통해 사전 균형을 확보하고, 모형 의존성과 선택편의를 최소화한 점은 본 연구 결과의 해석을 보다 신뢰성 있고 설득력 있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3) 매칭 분석 과정

본 연구의 CEM 매칭에는 여가지출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회경제적 요인인 연령, 학력, 가구원 수, 가구소득, 거주지, 경제활동 여부, 생활비를 공변량으로 포함하였다. 이때 각 관측치는 이러한 공변량의 구간화된 값이 서로 동일한 경우에만 매칭되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Group_i \sim Group_j &\Leftrightarrow c(\text{연령}_i) = c(\text{연령}_j), & \text{식(4)} \\ &\dots, c(\text{생활비}_i) = c(\text{생활비}_j) \end{aligned}$$

각 공변량에 대해 구간 범주화가 필요한데 이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연령은 분석 대상인 30대에서 50대까지의 기혼여성을 기준으로, 5세 단위로 나누어 총 6구간(30~34세, ..., 55~59세)으로 구분하였다. 학력은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반영하여 ① 고등학교 이하, ② 2·3년제 대학, ③ 4년제 대학, ④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원 수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로 나누었으며, 이는 가족돌봄 가능성과 여가지출 구조가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가구소득은 전체 분포를 기준으로 저소득, 중위소득, 고소득의 3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경제활동 여부는 ① 비경제활동자, ② 실업자, ③ 경제활동 참여자로 구간화하였다. 생활비는 월평균 생활비 총합(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낮은 소비, 중간 소비, 높은 소비의 세 구간으로 나누었다. 이는 단순한 절대 지출액이 아니라, 기혼여성이 실제로 지출한 생활 규모를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지는 지역의 여가 자원 접근성과 생활비 격차를 고려하여 ① 비수도권 농어촌 및 중소도시, ② 비수도권 대도시, ③ 수도권으로 구간화하였다. 이와 같은 설계를 통해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돌봄이 여가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통계 패키지 R(ver 4.4.3)을 활용하였다. 이후 매칭 전후의 t-test 결과를 비교하여 집단 간 여가지출 차이를 확인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인구통계 특성

CEM 적용 전후의 비돌봄집단과 돌봄집단 및 가족돌봄 유형별 인구통계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CEM 적용 전, 비돌봄 집단은 1,608명, 돌봄집단은 1,960명이었으며, 두 집단은 평균 연령, 학력, 경제활동 참여율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CEM 적용 후에는 비돌봄 1,524명, 돌봄 1,641명이 매칭되었으며,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전반적으로 조정되어 집단 간 비교의 타당성이 높아졌다. 한편, 가족돌봄 유형별로는 이중돌봄 899명 자녀돌봄 81명과 이중돌봄 30명 부모돌봄 27명이 각각 매칭되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이들 집단에서도 전반적인 인구통계 특성이 균형 있게 조정되었다.

〈표 2〉 분석 대상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CEM 전					CEM 후					
		비돌봄	돌봄	자녀	부모	이중	비돌봄 vs 돌봄		이중 vs 자녀		이중 vs 부모	
		(1,608)	(1,960)	(1,738)	(114)	(108)	비돌봄	돌봄	이중	자녀	이중	부모
		(1,524)	(1,641)	(899)	(81)	(30)	(27)					
		N (%)	N (%)	N (%)	N (%)	N (%)	N (%)		N (%)		N (%)	
학력	고졸 이하	965 (60.0)	773 (39.4)	669 (38.5)	62 (54.4)	42 (38.9)	915 (60.0)	673 (41.0)	223 (24.8)	31 (38.3)	13 (48.1)	13 (43.3)
	2/3년제 대학	240 (14.9)	487 (24.8)	446 (25.7)	14 (12.3)	27 (25.0)	232 (15.2)	408 (24.9)	311 (34.6)	21 (25.9)	7 (25.9)	5 (16.7)
	4년제 대학	374 (23.3)	626 (31.9)	557 (32.0)	33 (28.9)	36 (33.3)	350 (23.0)	502 (30.6)	355 (39.5)	27 (33.3)	7 (25.9)	12 (40.0)
	대학원 이상	29 (1.8)	74 (3.8)	66 (3.8)	5 (4.4)	3 (2.8)	27 (1.8)	58 (3.5)	10 (1.1)	2 (2.5)	-	-
거주지	비수도권	488 (30.3)	615 (31.4)	546 (31.4)	34 (29.8)	35 (32.4)	476 (31.2)	509 (31.0)	315 (35.0)	27 (33.3)	6 (22.2)	12 (40.0)
	비수도권 대도시	415 (25.8)	458 (23.4)	419 (24.1)	17 (14.9)	22 (20.4)	387 (25.4)	379 (23.1)	222 (24.7)	13 (16.0)	2 (7.4)	2 (6.7)
	수도권	705 (43.8)	887 (45.3)	773 (44.5)	63 (55.3)	51 (47.2)	661 (43.4)	753 (45.9)	362 (40.3)	41 (50.6)	19 (70.4)	16 (53.3)
경제활동 여부	비경제활동자	560 (34.8)	730 (37.2)	656 (37.7)	31 (27.2)	43 (39.8)	521 (34.2)	579 (35.3)	318 (35.4)	31 (38.3)	8 (29.6)	11 (36.7)
	실업자	9 (0.6)	21 (1.1)	19 (1.1)	2 (1.8)	-	4 (0.3)	4 (0.2)	-	-	-	-
	경제활동 참여자	1,039 (64.6)	1,209 (61.7)	1,063 (61.2)	81 (71.1)	65 (60.2)	999 (65.6)	1,058 (64.5)	581 (64.6)	50 (61.7)	19 (70.4)	19 (63.3)
변수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나이		52.9 (4.5)	46.0 (6.2)	45.8 (6.0)	51.8 (6.5)	43.7 (5.7)	52.8 (4.6)	46.7 (6.1)	44.2 (5.5)	45.4 (4.8)	47.2 (4.76)	50 (6.3)
가구원 수		3.48 (0.9)	4.03 (0.9)	3.9 (0.9)	4.41 (1.1)	5.35 (1.0)	3.45 (0.9)	3.88 (0.9)	5.12 (1.1)	3.97 (0.8)	5 (0.95)	4.6 (1.0)
가구소득 (만원)		7,570 (4,408)	7,164 (4,290)	7,157 (4,375)	7,340 (4,062)	7,090 (2,945)	7,340 (3,552)	6,878 (2,990)	6,831 (2,524)	7,087 (2,734)	6,587 (2,138)	6,331 (2,327)
생활비 (만원)		388 (157)	413 (153)	413 (150)	394 (180)	434 (163)	379 (144)	397 (134)	423 (130)	413 (121)	437 (107)	370 (111)

## 2. 모형의 타당성 검증

먼저, 가족돌봄 집단과 비가족돌봄 집단 간의 매칭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이중돌봄을 기준으로 자녀 및 부모돌봄집단을 각각 별도로 추가 매칭하였다. 분석대상 집단 간 매칭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통제변수의 불균형

(imbalance, L1) 변화를 <표 3>에 제시하였다. L1값은 0에 가까울수록 두 집단 간의 분포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매칭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Iacus, King & Porro, 2012).

<표 3> CEM 분석 전·후 불균형 비교

변수		불균형(L1)					
		비돌봄 vs 돌봄		이중 vs 자녀		이중 vs 부모	
		전	후	전	후	전	후
나이		1.060	0.980	0.339	0.234	1.095	0.505
학력		0.340	0.300	0.063	0.220	0.210	0.036
가구원 수		0.580	0.490	1.551	1.321	0.810	0.447
가구소득		0.090	0.140	0.015	0.094	0.070	0.115
거주지	비수도권 대도시	0.060	0.050	0.088	0.202	0.143	0.029
	수도권	0.030	0.050	0.055	0.210	0.161	0.347
경제활동 여부	실업자	0.060	0.020	0.020	0.061	0.229	0.148
	경제활동참여자	0.060	0.004	0.108	-	0.185	-
생활비		0.160	0.130	0.1390	0.0790	0.2340	0.5940
구분		최종 매칭정보					
		비돌봄	돌봄	이중	자녀	이중	부모
총 대상 수		1,608	1,960	1,738	108	108	114
매칭된 대상 수		1,524	1,641	899	81	30	27
매칭되지 않은 대상 수		84	319	839	27	78	87
전체 계층 수		252		232		146	
매칭된 계층 수		118		53		18	

비돌봄과 가족돌봄 집단 간 CEM 매칭 결과(<표 3> 하단), 주요 변수의 불균형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매칭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다. 매칭 후 비돌봄 1,524명, 돌봄 1,641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총 118개 계층이 활용되었다. 가족돌봄 유형별 매칭 결과, 이중돌봄집단은 자녀돌봄집단과의 비교에서 각각 899명과 81명이 매칭되었으며(53개 계층), 이중돌봄집단과 부모돌봄집단 간 비교에서는 각각 30명과 27명(18개 계층)이 매칭되었다.

### 3. 가설 검증

#### 1) 개인 여가지출 차이

〈표 4〉에 비돌봄집단과 돌봄집단 간 기혼여성의 여가지출 차이에 대한 t-test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돌봄집단은 비돌봄집단에 비해 여가지출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EM 적용 전, 돌봄집단의 평균 여가지출은 8.88만원으로, 비돌봄집단(14.97만원)보다 유의하게 낮은 상태였다. CEM을 통해 주요 공변량의 분포를 보정한 이후에도 동일한 경향이 유지되었으며, 돌봄집단의 평균은 8.62만원, 비돌봄집단은 15.0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돌봄 수행 여부가 기혼여성의 여가지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돌봄 수행으로 인해 여가를 위한 기회와 경제적 자원이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기혼여성은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기혼여성보다 여가지출이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 1-1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4〉 개인 여가지출 t-test 분석 결과

변수	비돌봄 vs 돌봄				이중 vs 자녀				이중 vs 부모			
	CEM 전		CEM 후		CEM 전		CEM 후		CEM 전		CEM 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이중	자녀	이중	자녀	이중	부모	이중	부모
	M(SD)		M(SD)		M(SD)		M(SD)		M(SD)		M(SD)	
개인	14.97 (39.7)	8.88 (27.7)	15.04 (40.5)	8.62 (28.9)	6.43 (15.5)	6.38 (15.2)	6.43 (10.8)	9.07 (14.3)	6.43 (31.7)	9.08 (15.5)	3.10 (14.5)	3.62 (5.28)
t(p)	-5.20***		-5.11***		-1.57		0.10		0.79		0.39	

주: 1. \*p<.1, \*\*p<.05, \*\*\*p<.01

2. t값의 부호는 기준 집단 대비 상대 집단의 평균 차이 방향을 나타내며, 양수는 상대 집단의 평균이 높음을 음수는 낮음을 의미한다.

이중돌봄집단과 자녀돌봄 및 부모돌봄집단 간 개인 여가지출을 비교한 결과(〈표 4〉), 여가 유형별 개인 여가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봄집단과의 비교에서는 CEM 후 이중돌봄집단이 6.43만원, 자녀돌봄집단이 9.0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돌봄집단과의 비교에서도 각각 3.10만원과 3.62만원으로 이중돌봄집단이 더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중돌봄을 수행하는 기혼여성의 여가지출이 자녀돌봄 혹은 부모돌봄을 수행하는 기혼여성보다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 1-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매칭 과정에서 돌봄 집단 간 비교가능한 관측치가 줄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뒷부분 결과의 강건성 검증 부분에 전체 관측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의 감응도를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교에서 이중돌봄집단의 평균 여가지출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상황에서 기혼여성이 여가에 지출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돌봄 부담의 중첩이 개인의 여가 참여 여건을 더욱 위축시키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 2) 가구 여가지출 차이

CEM 전후를 비교한 결과, 비돌봄집단과 돌봄집단 간 가구 여가지출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매칭 이전에는 비돌봄집단의 평균 여가지출이 18.89만원, 돌봄집단은 17.06만원으로,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EM을 적용한 후에도 비돌봄집단은 17.72만원, 돌봄집단은 16.38만원으로 여전히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내에 돌봄대상이 존재할 경우, 전체 자원이 돌봄 중심으로 우선 배분되면서 여가에 대한 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가족 차원의 지출 구조에서 돌봄 관련 비용이 선행되면서, 여가지출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표 5> 가구 여가지출 t-test 분석 결과

변수	비돌봄 vs 돌봄				이중 vs 자녀				이중 vs 부모			
	CEM 전		CEM 후		CEM 전		CEM 후		CEM 전		CEM 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이중	자녀	이중	자녀	이중	부모	이중	부모
	M(SD)		M(SD)		M(SD)		M(SD)		M(SD)		M(SD)	
가구	18.89 (18.5)	17.06 (14.8)	17.72 (16.4)	16.38 (14.9)	17.82 (13.9)	17.00 (14.7)	14.28 (12.7)	10.80 (8.4)	17.81 (13.9)	17.20 (17.5)	13.25 (11.3)	14.27 (12.3)
t(p)	-3.22**		-2.27**		-0.59		-2.44**		-0.29		0.19	

주: 1. \*p<.1, \*\*p<.05, \*\*\*p<.01

2. t값의 부호는 기준 집단 대비 상대 집단의 평균 차이 방향을 나타내며, 양수는 상대 집단의 평균이 높음을 음수는 낮음을 의미한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중돌봄집단과 자녀돌봄집단과의 비교에서

CEM 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CEM 적용 후에는 이중돌봄집단이 평균 14.28만 원, 자녀돌봄집단이 10.80만 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중돌봄집단의 여가지출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돌봄집단과의 비교에서는 CEM 전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에 “이중돌봄 가구의 여가지출이 자녀돌봄 또는 부모돌봄 가구보다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 2-2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봄 가구보다 이중돌봄 가구의 여가지출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은 다소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로 판단된다. 이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체 관측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는데(<표 7>), 자녀돌봄 유형은 가구의 여가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EM 분석에서 자녀돌봄집단보다 이중돌봄집단의 여가지출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않는 매칭 후 사용된 표본에 국한된 문제로 판단된다.

### 3) 여가만족도 차이

돌봄 여부 및 돌봄 유형에 따른 기혼여성의 여가만족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비돌봄 집단과 돌봄 집단 간 비교 결과, CEM 전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비돌봄 집단(4.41점)이 돌봄 집단(4.17점)보다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돌봄 수행이 여가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표 6> 돌봄 여부 및 유형별 여가만족도 t-test 분석 결과

변수	비돌봄 vs 돌봄				이중 vs 자녀				이중 vs 부모			
	CEM 전		CEM 후		CEM 전		CEM 후		CEM 전		CEM 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이중	자녀	이중	자녀	이중	부모	이중	부모
	M(SD)		M(SD)		M(SD)		M(SD)		M(SD)		M(SD)	
만족도	4.42 (0.98)	4.16 (1.03)	4.41 (0.97)	4.17 (1.02)	4.06 (0.89)	4.17 (1.04)	4.01 (0.89)	4.19 (1.06)	4.05 (1.01)	4.06 (0.89)	3.88 (0.9)	4.82 (0.92)
t(p)	-7.74***		-4.81***		1.16		1.33		0.09		2.47**	

주: 1. \*p<.1, \*\*p<.05, \*\*\*p<.01

2. t값의 부호는 기준 집단 대비 상대 집단의 평균 차이 방향을 나타내며, 양수는 상대 집단의 평균이 높음을 음수는 낮음을 의미한다.

자녀돌봄집단과 이중돌봄집단 간 비교에서는(<표 6>), CEM 전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면 이중

돌봄집단의 만족도가 자녀돌봄집단보다 일관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부모돌봄집단과 이중돌봄집단 간 비교에서는 CEM 적용 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중돌봄집단(3.88점)이 부모돌봄집단(4.82점)보다 여가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돌봄의 복합성이 심화될수록 여가활동의 질적 충족감이 저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설 3-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여가지출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돌봄 수행 여부 및 그 복합성(특히 이중돌봄)의 차이에 따라 여가만족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단순한 지출 규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돌봄 부담의 정서적·심리적 영향이 여가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 4) 강건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CEM 기법을 통해 주요 공변량을 통제한 후, 가족돌봄 여부 및 유형에 따른 여가지출 및 여가만족도의 차이를 t-test로 검토한 바 있다. 돌봄집단 간 CEM 매칭 후 관측치가 줄어드는 문제로 인한 한계를 보완하고, 인구통계를 비롯한 공변량을 통제한 후 돌봄 수행 여부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CEM에서는 t-test 이전에 집단 간 매칭과정에서 공변량이 통제되고, 회귀분석에서는 분석 절차 과정에서 공변량으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두 가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가설이 일관성있게 지지되는지를 살피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분석 결과, 가족돌봄 여부는 세 종속변수 모두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먼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기혼여성은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기혼여성보다 개인 여가지출 수준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beta = -5.588$ ,  $p < .01$ ), 가설 1-1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구 여가지출에 대한 회귀 결과 또한 동일한 방향성을 보였으며( $\beta = -2.568$ ,  $p < .01$ ), 이에 가설 2-1 역시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 여부는 여가만족도에도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0.152$ ,  $p < .01$ ), 가설 3-1 또한 지지되었다. 다음 단계로 가족돌봄의 세부 유형(자녀돌봄, 부모돌봄)이 세 종속변수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세 경우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표 7〉).

〈표 7〉 강건성 검증 분석

구분		종속변수					
		개인 여가지출		가구 여가지출		만족도	
		돌봄여부	돌봄유형	돌봄여부	돌봄유형	돌봄여부	돌봄유형
		$\beta$ (SE)	$\beta$ (SE)	$\beta$ (SE)	$\beta$ (SE)	$\beta$ (SE)	$\beta$ (SE)
(상수)		9.378 (-7.605)	4.851 (-8.125)	5.231* (-3.067)	11.280** (-3.633)	4.078*** (-.226)	4.035*** (-.298)
가족돌봄 여부		-5.588*** (-1.346)	-	-2.568*** (-.543)	-	-.152*** (-.040)	-
가족 돌봄 유형	자녀돌봄	-	.773 (-2.927)	-	-2.003 (-1.309)	-	-.036 (-.107)
	부모돌봄	-	2.863 (-3.839)	-	.821 (-1.717)	-	-.140 (-.141)
연령		0.091 (-.104)	-.044 (-.110)	-0.038 (-.042)	-.140*** (-.049)	.012*** (-.003)	.012** (-.004)
학력		.790* (-.439)	.804 (-.499)	0.25 (-.177)	-.048 (-.223)	.032*** (-.013)	.012 (-.018)
가구원 수		-1.586** (-.647)	-1.549** (-.761)	-2.000*** (-.261)	-1.847*** (-.340)	-.053*** (-.019)	-.071** (-.028)
가구 소득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거주지	비수도권 대도시	1.116 (-1.404)	.761 (-1.602)	-1.811** (-.566)	-1.651** (-.716)	.213*** (-.042)	.243*** (-.059)
	수도권	3.546*** (-1.319)	.055 (-1.474)	-2.876*** (-.532)	-3.443*** (-.659)	-0.046 (-.039)	-.030 (-.054)
경제 활동 여부	실업자	-6.633 (-6.138)	-1.550 (-6.117)	0.052 (-2.476)	-5.600** (-2.735)	-0.07 (-.183)	.020 (-.224)
	경제활동 참여자	-7.741*** (-1.174)	-2.845** (-1.321)	-1.457** (-.474)	-1.248** (-.591)	-.332*** (-.035)	-.325*** (-.048)
생활비		.023*** (-.004)	.018*** (-.005)	.061*** (-.002)	.052*** (-.002)	.000* (.000)	.000 (.000)
F(p)		14.74***	3.02**	193.42***	80.61***	23.51***	9.05***
R <sup>2</sup>		0.04	.017	0.352	.313	0.062	.049
adj R <sup>2</sup>		0.037	.011	0.35	.309	0.059	.043
Durbin-Watson		1.889	1.930	1.945	2.011	1.825	1.811

주: 1. \* $p < .1$ , \*\* $p < .05$ , \*\*\* $p < .01$

2. 범주형 설명변수의 기준항은 가족돌봄 여부는 비돌봄집단, 가족돌봄 유형은 이중돌봄, 거주지는 비수도권이다. 경제활동여부의 기준항은 비경제활동자로서 설정하였으며, 전업 주부는 비경제활동자에 포함된다.



〈표 8〉은 각 가설에 대해 CEM 집단 간 비교 결과와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를 보면, 두 방법의 검증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각 가설에 대한 채택 또는 기각 여부가 분석 방법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향성과 유의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강건하고 해석의 일관성이 확보되었음을 시사한다.

〈표 8〉 가설 검증 결과

구분	가설	검정 결과	회귀분석 결과
가설 1-1	가족돌봄 여부 → 돌봄 제공 기혼여성 여가지출 수준	채택	채택
가설 1-2	가족돌봄 유형 → 돌봄 제공 기혼여성 여가지출 수준	기각	기각
가설 2-1	가구 내 돌봄 대상 존재 여부 → 가구의 여가지출 수준	채택	채택
가설 2-2	가구 내 돌봄 대상 유형 → 가구의 여가지출 수준	기각	기각
가설 3-1	가족돌봄 여부 → 기혼여성 여가만족도	채택	채택
가설 3-2	가족돌봄 유형 → 기혼여성 여가만족도	부분 채택	기각

## V.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 및 유형에 따라 여가지출과 여가만족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가족돌봄이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CEM 분석 결과,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기혼여성의 개인 여가지출은 비돌봄 여성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가족돌봄이 기혼여성의 여가 자원 확보에 제약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계비 외에도 돌봄과 관련된 비용을 우선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여가를 위한 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가구 단위 여가지출은 비돌봄집단보다 돌봄집단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기혼여성 개인 여가지출에서 나타난 차이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기혼여성 개인과 가구 여가지출 간의 상이한 결과는 가족돌봄이 기혼여성 개인의 여가생활에 보다 강한 제약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 단위의 여가지출은 돌봄 여부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작았지만, 개인 여가지출에서는 보다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이 돌봄을 수행하면서 가족을 위한 지출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여가소비를 후순위로 두는 경향을 보여준다(송

다영, 2014; Borelli et al., 2017), 이는 기혼여성이 돌봄 책임으로 인해 자신의 여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Künemund, 2006; Meng, 2013; Rubin & White-Means, 2009; Kim & Jin, 2024). 여가활동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정서적 회복과 자기계발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Newman, Tay & Diener, 2014; von Känel et al., 2014). 따라서 돌봄을 담당하는 기혼여성은 돌봄 자체의 부담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한 여가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돌봄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회복하는 데도 불리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돌봄 유형 간 개인 여가지출의 차이를 보면, 세 가지 돌봄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면, 세 집단 중 이중돌봄집단의 개인 여가지출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자녀돌봄과 부모돌봄집단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돌봄의 복합성이 높을수록 개인이 여가에 지출할 수 있는 자원이 더욱 제한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반면, 가구 단위의 여가지출에서는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자녀돌봄집단과 이중돌봄집단 간 비교에서, 이중돌봄집단의 평균 가구 여가지출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전체 표본을 활용한 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차이는 매칭 후 표본의 특성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모돌봄집단과 이중돌봄집단 간의 가구 여가지출 평균은 이중돌봄집단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돌봄 여부 및 유형에 따른 여가만족도 분석 결과, 돌봄을 수행하는 기혼여성은 비돌봄 여성에 비해 여가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돌봄유형 간 비교에서는 이중돌봄과 부모돌봄집단 간 비교에서 이중돌봄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이중돌봄과 자녀돌봄집단 간 비교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평균 값을 살펴보면, 이중돌봄집단에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돌봄의 복합성이 클수록 여가로부터 얻는 심리적 만족과 회복감이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차이는 단지 여가지출 수준의 감소뿐 아니라, 여가 경험 자체의 질적 저하로도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가족돌봄이 단지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에 그치지 않고, 돌봄 제공자의 경제적 자원 배분에 구조적인 제약을 가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Godin & Langlois, 2021; Godin, 2022; Meng, 2013). 기혼여성은 생계비 외에도 돌봄에 수반되는 다양한 지출(예: 간병비, 교통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더 자주 놓이며, 이로 인

해 여가를 위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Kim & Jin, 2024; Meng, 2013). 이러한 맥락은 여가활동에 대한 재정적 접근성이 돌봄책임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단순한 시간 제약을 넘어 자원 배분의 구조적 불균형이 여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해준다. 이로 인해 여가에 대한 지출은 자연스럽게 낮은 우선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Kim & Jin, 2024). 이러한 경제적 제약은 여가 참여의 기회를 축소할 뿐 아니라, 참여의 질적 수준까지 저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돌봄과 여가의 연결구조에서 단지 시간적 제약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여가 지출은 단순한 소비 지표가 아닌 여가의 양적 참여와 질적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기능하며, 가족돌봄에 따른 여가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 도구임을 제시한다. 특히 돌봄의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여가 및 돌봄 정책은 개인 단위를 넘어 가족 전체의 자원 배분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1개년(2023년) 단면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나 돌봄 상황의 지속 여부에 따른 영향 차이를 포착하기 어렵다. 가족돌봄은 일시적 현상을 넘어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여가 자원에 대한 영향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 표본을 장기간 추적할 수 있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돌봄 기간의 길이, 변동 여부, 반복성 등과 여가지출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여성가족패널조사 데이터는 응답자의 자기보고(self-reported) 방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문항에서는 주관적 편향이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여가지출이나 여가만족도와 같은 변수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과소 또는 과대 보고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 해석에 있어 일정 수준의 주의를 요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이라는 국가 수준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비실험적 관측자료에서는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가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변량의 불균형을 사전에 통제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집단 간 비교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회귀계수의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CEM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히 이중돌봄 집단은 매칭 이후 분석 표본 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분석 결과의 통계적 안정성과 일반화 가능성에 일정한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 시 유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표본 손실의 한계를 본문에 명시하고 추가로 전체 관측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 확보와 함

께 이중돌봄 집단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 설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은 단지 개인의 경제적 여유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협조나 역할 분담 수준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남편의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 정도는 여가시간의 확보와 여가소비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 내 역할 분담이나 지지체계와 같은 정서적·관계적 요인도 함께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현정(2018). “장기요양재가서비스가 노동공급과 여가선호에 미치는 효과: 회귀 불연속설계를 이용한 일반등급과 치매등급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70권 제1호, 63-87.
- 김년희·이응진(2009). “여성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경제적 준비에 관한 연구-미혼 및 기혼여성의 여가변인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제5권 제1호, 185-206.
- 남궁명희(2009). “가족돌봄관계 연구경향 분석 및 제언: 기혼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0권 3호, 49-79.
- 문현아·차승은(2020). “가족의 노인 돌봄 경험과 딜레마: 누가 돌보고 어디에서 돌봐야 하는가”. *가족과 문화*. 제32권 제1호, 102-131.
- 민경선(2020). “노인의 여가생활 특성과 여가자원이 여가생활만족도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44권 제3호, 45-57.
- 송다영(2017). “이중돌봄 여성의 돌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동아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29권 2호, 95-125.
- 차승은(2015).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시간압박감과 관련요인의 차이: 아내의 시간, 남편의 시간, 그리고 가사노동 사회화의 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제33권 제5호, 37-53.
- 최종걸(2021). 50+리포트. 서울: 서울시50플러스재단.
- 통계청(2022). 고령자 통계. 서울: 통계청.
- 한국경제인협회(2024). 2025년 소비지출계획.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4). 2023 국민여가활동조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현주(2023). 한국의 사회불안 인식과 사회보장의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2020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4). 202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badie, A., & Imbens, G. W.(2016). Matching on the estimated propensity score. *Econometrica*, 84(2), 781-807.
- Borelli, J. L., Nelson, S. K., River, L. M., Birken, S. A., & Moss-Racusin,

- C. (2017). Gender differences in work-family guilt in parents of young children. *Sex Roles*, 76, 356-368.
- Boyczuk, A. M., & Fletcher, P. C.(2016). The ebbs and flows: Stresses of sandwich generation caregiver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3(1), 51-61.
- Daly, M.(2002). Care as a good for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olicy*, 31(2), 251-270.
- DeLeire, T., & Kalil, A.(2010). Does consumption buy happiness?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57, 163-176.
- Ekwall, A., Sivberg, B., & Hallberg, I. R.(2004). Dimensions of informal care and quality of life among elderly family caregivers.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18(3), 239-248.
- Gimenez-Nadal, J. I., & Sevilla-Sanz, A.(2011). The time-crunch paradox.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2(2), 181-196.
- Godin, L., & Langlois, J.(2021). Care, gender, and change in the study of sustainable consump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Frontiers in Sustainability*, 2, 725-753.
- Godin, L.(2022). Care and consumption. *Consumption and Society*, 1-9.
- Hammer, L. B., & Neal, M. B.(2008). Working sandwiched-generation caregivers: Prevalence,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The Psychologist-Manager Journal*, 11(1), 93-112.
- Hajek, A., & König, H. H.(2019). Impact of informal caregiving on loneliness and satisfaction with leisure-time activities. Findings of a population-based longitudinal study in Germany. *Aging and Mental Health*, 23(11), 1539-1545.
- Heckman, J. J., Ichimura, H., & Todd, P. E.(1997). Matching as an econometric evaluation estimator: Evidence from evaluating a job training programme.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4(4), 605-654.
- Heitmueller, A.(2007). The chicken or the egg?: Endogeneity in labour market participation of informal carers in England.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6(3), 536-559.

- Ho, D. E., Imai, K., King, G., & Stuart, E. A.(2007). Matching as nonparametric preprocessing for reducing model dependence in parametric causal inference. *Political Analysis*, 15(3), 199-236.
- Holland, P. W.(1986). Statistics and causal inference.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1(396), 945-960.
- Iacus, S., King, G., & Porro, G.(2009). CEM: Software for coarsened exact matching.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30, 1-27.
- Iacus, S. M., King, G., & Porro, G.(2012). Causal inference without balance checking: Coarsened exact matching. *Political Analysis*, 20(1), 1-24.
- Kang, E., Eun, K. S., Jun, J., Cha, S., & Moon, H.(2021). *Care arrangement and activities in South Korea: An analysis of the 2018 care work family survey on childcare and eldercare*. Care Work and The Economy Working Paper Series, Washington, DC: American University.
- Kim, E. M., & Hong, S. H.(2018). Impact of uncertainty on the anxiety of hospitalized pregnant women diagnosed with preterm labor: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uncertainty appraisal and coping sty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8(4), 485-496.
- Kim, Y., & Jin, H. J.(2024). Value of lost leisure among sandwich generation women performing caregiving duties for older parents.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06, 102974.
- Kuykendall, L., Zhu, Z., & Craig, L.(2020). How work constrains leisure: New ideas and directions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51(5), 635-642.
- Künemund, H.(2006). Changing welfare states and the “sandwich generation”: Increasing burden for the next gene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eing and Later Life*, 1(2), 11-29.
- Meng, A.(2013). Informal home care and labor-force participation of household members. *Empirical Economics*, 44(2), 959-979.
- Mui, A. C.(1995). Caring for frail elderly parents: A comparison of adult sons and daughters. *The Gerontologist*, 35(1), 86-93.
- Newman, D. B., Tay, L., & Diener, E.(2014). Leisure and subjective

- well-being: A model of psychological mechanisms as mediating facto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3), 555-578.
- Ory, M. G., Hoffman, R. R., Yee, J. L., Tennstedt, S., & Schulz, R.(1999). Prevalence and impact of caregiving: A detailed comparison of dementia and nondementia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9(2), 177-185.
- Rosenbaum, P. R., & Rubin, D. B.(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1), 41-55.
- Rubin, D. B.(1974). Estimating causal effects of treatments in randomized and nonrandomized stud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5), 688-701.
- Rubin, R., & White-Means, S.(2009). Informal caregiving: Dilemmas of sandwiched caregiv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0, 252-267.
- Spitze, G., & Logan, J. R.(1991, December). *Employment and filial relations: Is there a conflict?*. In Sociological Forum (Vol. 6, pp. 681-697). Dordrecht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Plenum Publishers.
- Ungerson, C.(2005). *Care, work and feeling*. The Sociological Review, 53(2\_suppl), 188-203.
- von Känel, R., Mausbach, B. T., Mills, P. J., Dimsdale, J. E., Patterson, T. L., Ancoli-Israel, S., ... & Grant, I.(2014). Longitudinal relationship of low leisure satisfaction but not depressive symptoms with systemic low-grade inflammation in dementia caregivers.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9(3), 397-407.



## Abstract

## Leisure Expenditure and Satisfaction among Family Caregivers\*

Yejin Wi\*\* · Hyun Joung Jin\*\*\*

This study aims to examine differences in leisure expenditure and leisure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based on their engagement in family caregiving, which is classified into child care, elderly care, and dual caregiving. Using data from the 9th wave (2023)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a sample of 3,568 married women in their 30s to 50s was analyzed. To control for ke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Coarsened Exact Matching (CEM) was applied, followed by t-tests to compare differences in leisure expenditure and satisfaction across caregiving groups. Regression analysis controlling for the same covariates was also conducted to ensure robustness. The findings indicate that women engaged in family caregiving report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both personal and household leisure expenditure, as well as lower leisure satisfaction, compared to non-caregivers. This suggests that caregiving negatively affects both material and emotional aspects of leisure. While leisure expenditure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across caregiving types, leisur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dual-caregiving group than in the elderly-caregiving group. On average, the dual-caregiving group showed the lowest levels of both leisure expenditure and satisfaction, highlighting the structural constraints of complex caregiving responsibilities.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s that engaging in family caregiving leads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leisure expenditure at both the individual and household level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Research Scholarship in 2021

\*\* Graduate Student,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Arts & Cultural Management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Ph.D,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caregiving responsibilities impose structural constraints on women's leisure resources and can affect both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ir leisure life. Accordingly, future leisure and caregiving policies should consider the family-level structure of resource allocation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individuals.

**Keywords :** Family Caregiving, Married Women, Leisure Expenditure, Leisure Satisfaction, Coarsened Exact Matching(CEM)